

먹을 것도 줄이는데... 초고가 시장은 '쑥쑥'

장기 불황에 소비심리 위축...식품 지출 4분기 연속 감소 프리미엄 가전 매출 60%·수입차 3.2% ↑...양극화 심화

장기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전·자동차 시장 등을 중심으로 초고가(프리미엄) 제품이 잘 팔리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소비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통계청과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깊어지며 가계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커피 및 차(-5.7%·15분기)와 같은 기호식품 소비는 감소세가 더 오래됐다.

하지만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시장에서 고가의 대형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프리미엄 수입차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다.

삼성전자의 LG전자 등 가전업체는 최근 잇따라 고가 제품을 내놓으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혁신을 앞세운 이들 제품은 높은 가격에도 국내 시장에서 '대박'을 쳤고, 불황 속에서도 가전 부

문의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의 경우 프리미엄 냉장고 T타입(4도어, 상냉장·하냉동) 제품군의 누적 판매량은 10월 말 기준으로 65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출시 첫해 국내 냉장고 매출의 약 20%를 차지했던 이들 프리미엄 제품군의 비중은 올해는 6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역시 지난 3월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는 '초프리미엄' 가전 통합브랜드 'LG 시그니처'를 내놓았는데 현재 국내 판매량이 예초 목표치의 2배를 넘어서며 순항하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의 인기는 수입자동차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침체와 디젤 게이트 등 여파 속에서도 고가의 프리미엄 수입차 판매는 오히려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내에서 팔린 프리미엄 수입차는 13만6523대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만2255대에 비해 3.2% 증가했다. 일반 브랜드 수입차의 1~10월 판매

량이 전년 동기 대비 23.3% 떨어진 4만 9278대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문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 위축이 계속되면서 고소득층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저소득층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포기하며 허리를 졸라매지만 고소득자는 교양·오락 등 지출을 늘리고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프리미엄제품의 판매가 늘고 있다는 것은 소비시장이 경기와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축진을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소득여건 개선, 임금 격차 해소 등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71.26 (-16.69)
- ↑ 금리 (국고채 3년) 1.81% (+0.04)
- ↓ 코스닥 592.65 (-7.64)
- ↑ 환율 (USD) 1180.10원 (+3.90)



교육·교통·편의시설 '삼호 대불 중흥S'

중흥건설, 산단내 1360가구 공급...오늘부터 분양

중흥건설은 25일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 '삼호 대불산단 중흥S-클래스 리버티'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중흥S-클래스 리버티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 B-4블록에 위치한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25층 16개동 ▲전용 59㎡ 768가구 ▲전용 74㎡ 236가구 ▲전용 84㎡ 356가구 등 총 1360가구 규모로 구성된 랜드마크급 대단지다.

〈투시도〉

전세대 판상형 남향배치로 채광과 일조량이 우수하며, 4Bay구조(74㎡·84㎡) 혁신평면을 적용해 개방성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또한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단지 내 명품 커뮤니티 시설인 '클래시안 센터'도 조성된다.

중흥S-클래스 리버티는 인근 산업단지 이동이 편리하고 상호대교를 통해 목포 구도심과 무안군 남악신도시로 접근성이 좋은 것이 장점이다. 삼호중합터미널이 인접해 목포 시내의 물론 시외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한 광역접근성도 용이하다.

이와함께 교육·자연·생활편의시설 등 주거편의 3박자를 갖췄다는 평이다. 단지 바로 앞에 대불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삼호중·삼호고·세한대학교가 가까워 여건이 우수하다. 중심상업시설과 인접하고, 롯데슈퍼와 하나로마트, 삼호스포츠편, 농협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기가 수월하다.

삼호사계절 잔디축구장과 삼호호를 놓여준 녹지공간이 조성된 대불주거단지 중앙공원을 비롯해 대규모 근린공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운동과 산책 등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견본주택은 영암군 삼호읍 용암리 1657-14번지에 마련됐다. 문의 1522-0648.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승강기 안전정보공유 및 동반성장 업무협약

·일시: 2016. 11. 23(수) 14:00

·장소: (주)대명엘리베이터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사옥에서 최광일 (주)대명엘리베이터 대표와 관계자들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승강기 안전정보공유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명엘리베이터 제공〉

광주 대명엘리베이터 동반성장 협약

(주)대명엘리베이터(대표 최광일)는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사옥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백낙문)과 승강기 안전정보공유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협약식은 양 기관 승강기 안전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사항을 정해, 승강기 안전도 향상, 정부 3.0 정책이행 및 동반성장을 위해 이뤄졌다.

또 이번 협약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자체점검결과와 기록관리의무에 따른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점검결과와 데이터를 자체 개발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손쉽게 업로드 할 수 있게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백낙문 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승강기 안전정보공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광일 대표도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승강기 안전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 승강기 안전 기술이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유력 승강기 업체인 (주)대명엘리베이터는 자체 개발한 승강기관리프로그램과 함께 어플을 활용, 언제 어디서든 승강기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달부터 주택 전기료 평균 11% 낮아진다

누진제 3단계 3배수 조정 개편안 발표...공청회 거쳐 12월 확정

주택용 전기요금이 현 체제 시행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 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39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안은 구간·요율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236 kWh 이하인 1122만 가구에서 최대 4330

원인 요금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안은 전 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앴다.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 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다.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의 요율인 187.9원을 일괄 적용한다. 요금이 오르는 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더 커진다. 3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연합뉴스

사용량 (kWh)	현행 (원)	3안 적용시 (원)
100	6,480	6,240
200	19,570	15,570
300	39,050	39,050
400	68,930	57,840
500	114,580	91,600
600	191,170	119,600
700	262,120	147,780
800	333,070	175,780
900	404,020	203,840
1000	474,970	231,900

아파트 잔금대출도 원리금 나눠갚아야

금융위 내년부터 도입...총체적 상환능력 심사 내달 시행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를 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부터 잔금대출 때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농·축·수협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처럼 분할상환 원칙이 도입된다.

금융기관이 대출자의 빚을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심사와 사후 관리에 활용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후속조치 발표에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적용기관은 은행, 보험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해당된다.

/연합뉴스

중개법인 한국토지경매

대표 1522·3396

<p>경매 골프장</p> <p>감정가 39억8천만, 최저가 27억8천만</p> <p>광양시 봉곡면 / 9홀 / 대지 9673평, 건물 232평</p>	<p>경매 상가건물</p> <p>감정가 12억2천만, 최저가 12억2천만</p> <p>무안군 삼향읍 / 대지 126평, 건물 289평 / 남악신도시내 위치</p>
<p>매매 오피스텔</p> <p>매매가 42억</p> <p>조선대공대입구 / 10층 / 신축 / 대지 183평, 건물 600평</p>	<p>매매 상가건물</p> <p>매매가 15억</p> <p>첨단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경매 교육 연구 시설

감정가 16억 2천만, 최저가 16억 2천만

순천시 낙안면 / 대지 3987평 건물 336평 / 1종일반주거지역 / 아곡마을 내 위치 / 수목 식재

경매 가스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7억 1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63평 / 자연녹지지역 / 35m도로점 / 자동차세차기 / 3기 6구

매매 숙박시설

감정가 9억 4천만, 최저가 6억 6천만

북구 중흥동 / 총 8층 / 대지 91평 건물 340평 / 일반상업지역 / 코너 / 광주역 앞 위치

매매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4억 5천만, 최저가 4억 5천만

남구 주월동 / 총 4층 / 대지 71평 건물 177평 / 4층 안집 / 1종일반주거지역 / 코너 / 10m도로점

매매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영업중

매매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군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매매 연립주택 부지

매매가 12억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 담 1098평 / 계획관리지역 / 도로점 / 주변 명품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매매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매매 연립주택 및 빌라 부지

매매가 4억 3천만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 전 1513평 / 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점 / 월출산 조망

매매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 - 1114 김 주 성**